

나주 'SRF 갈등' 공론화로 푼다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광주시·전남 6개 시·군 현안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모델로
가동 문제 해법 도출 추진
시민참여형 숙의조사 검토



빛가람혁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를 재가동하는 문제가 공론화를 통해 해법을 찾는 전망이다. 고형폐기물연료를 사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전경.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와 전남 6개 시·군의 공동 현안인 나주 혁신도시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이는 최근 광주시가 16년 간 끌어왔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를 '공론화'에 부처 큰 잡음없이 이해관계를 조율한 사례를 모델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찬반 갈등이 거센 광주전남혁신도시 내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해법을 찾기로 잠정 결론 지었다. 이해 당사자간 입장 차이에 따른 갈등을 여럿이 함께 논의·숙고해 공적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 공공의 의견을 도출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SRF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하고, 이에 따른 갈등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도 '공론화' 도입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지역 상생형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는데,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책에서 나주 혁신도시가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공론화에 나서게 된 이유로 풀이된다. 전남 6개 시·군(나주·목포·순천·구례·화순·신안)의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도 압박 요인이 됐다.

'공론화 방식 도입'까지는 의견이 모아

졌지만 공론화 방식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이었던 '시민참여형 숙의조사'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특히, 시민참여단 구성을 놓고 나주시민으로만 할지, 인근 시·군 주민까지 포함할지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나주시는 지난 8월29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해소를 위해 공론화를 추진해 줄 것을 전남도에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전남도에 공론화 추진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기관은 "지역 사회의 참여한 갈등과 논란 해소를 위해 시민 참여 방식의 합리적인 토론·숙의 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나주

시와 지역난방공사는 이해 당사자인 탓에 공론화 과정을 주도할 수 없어 전남도가 주관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나주시·난방공사·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논의했지만, 대안은 공론화 밖에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박정옥 기자 jwpark@kwangju.co.kr

軍공항 이전 지역 반발 현실화

국방부 집중 협의의 나서자 무안군의회 '반대 결의문' 채택

광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중 한 곳인 무안군 의회가 '광주 군 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역 반발이 현실화하고 있다.

20일 무안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전날 '광주 군 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무안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군 공항 이전에 따른 피해 규모와 대책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사업의 당위성 위주라면 흥분하고 확정되지도 않은 개략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은 책무성이 결여된 졸속 추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군 공항 이전 예정부지가 22.9km의 해안선과 해양관광자원의 중심부에 있고 다도해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무안국제공항·고속철도(KTX)역세권 개발사업·항공특화산업단지 인근이어서 군 공항이 이전된다면 군의 발전 전략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안군의회는 "무안공항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광주 군 공항의 무안군 이전을 결사반대한다"며 "특정 지역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만을 위해 발의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로 추천된 전남 4개 군을 대상으로 작전성,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는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예비 이전 후보지로 추천한 영암, 무안, 신안, 해남 등 4개 군 가운데 2개 군과 집중적인 협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의회가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최근 국방부가 협의에 나서면서 무안군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른 데 따른 대응으로 분석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광주시가 총 5조7480억원을 들여 15.3km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하고, 8.2km의 중점 부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양여' 방식의 사업이다. 이전 후보지를 확정하면 주민지원 사업으로 4500억원의 투입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국방부와 접촉이 이뤄지면서 후보지 선정에 대한 우려로 결의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부와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고 주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대통령 '9대 생활적폐' 청산 나섰다

학사·유치원 비리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제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 적폐 청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취임 후 1년 6개월 동안 권력기관 적폐 청산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생활 속 비리와 부패 척결에 힘을 더 쏟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청와대인정수석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만든 생활적폐 9개 과제 청산 결과를 보고 받고 "반부패 정책은 이번 정부의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9개 생활적폐는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박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학사 비리와 관련,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그리고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능 비중 축소, 내신·학종(학생부 종합전형) 비율 확대 등의 정책 추진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학사 비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오늘 발표된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폐원과 원아 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 시 주변 병설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국민에게 분명히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화전당, 복합문화기관 토대 마련 ... 조직 이원화 등 과제 여전

25일 개관 3주년

오는 25일로 개관 3주년을 맞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이하 문화전당)이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복합문화기관으로서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조직 이원화, 전당장 공석, 전당장 차관급 격상 등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어 도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관당시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아시아 문화발전소' 도약과 국제적 문화 인프라 구축이라는 당초의 청사진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

20일 문화전당에 따르면 어린이문화원의 경우 3개 주제의 어린이 체험관과 아울러 다양한 교육, 창작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2018년에만 관람객이 102만 명(10월 말 기준)을 돌파하는 등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지금까지 문화전당이 공연 513회를 비롯해 전시 58회, 교육 848회, 축제 97회 등 총 2500여 회가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선 것은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개관 3년째임에도 전당장 공석이 이어지면서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는 데다 전체 조직이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이원화되는 등 비정상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감독기관인 문화전당과 콘텐츠 창작 제작 업무 등을 위탁받은 아시아문화원이 2개 조직으로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화원의 업무를 감독하는 경직된 구조라는 점에서 의사결정과 효율성 면에서 한계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광주 문화산업을 견인할 길러콘텐츠를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내의 관람객을 폭넓게 끌어들이 수 있는 대표 콘텐츠 부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중심축인 전당의 위상 및 성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진식 직무대리는 "길러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대형 창작공연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계기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일보
전라도 1000년 인물 열전
-고광순 의병장 '노블레스 오블리주' ▶18면
김여울 기자 오키나와 캠프 가다
- KIA 신인 좌완 삼총사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W
한울 달빛유자 수면팩

한울 달빛유자 수면팩

잘가, 피부 피로
잘자, 내 피부

고흥 유자 6개를 고스란히 담아 유자비타C 콤플렉스™의 항산화력으로
피부피로를 싸악 풀어 다음 날, 생기 가득 환한 피부

한울 韓律

· 전국 어린이·청소년 미용·아모레퍼시픽 매장·아모레퍼시픽 온라인몰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http://www.amorepacific.com · 전화번호: 080-023-5454